



최미사
청년부/51속

여은파(여자청년들의 은밀한 파티) 후기

사람들이 내게 건넨 질문은 ‘어떻게 이 파티가 시작되었냐’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신년을 함께 보내고 싶었다. 여러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여자 청년들만의 모임을 계획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인원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 행사가 아닌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작은 파티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졌고, 청년부 수련회를 방불케 했다.

사실, 내가 처음 생각하던 모임은 그저 몇 명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임이 기획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숙소 예약과 회비 책정부터 ‘혹여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소외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실수하지 않을까’와 같은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모임은 내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마침 그때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조언해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 능력으론 도저히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임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략한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셨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청년들을 보니 생각이 변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모임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새, 나는 부담감보다 설렘이 커졌다. **하나님은 이번 모임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행복을 주셨다.** 하나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쁨,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했던 따뜻한 감동이다. 그동안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좀처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알아가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일상에 대한 질문부터 서로에 대한 칭찬까지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알고 지낸 시간에 비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에 행복감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엘리야의 실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으며, 스스로에게 어떤 꼬리표를 달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더불어 하나님의 치료 방식을 배우고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나눴다. 기도회가 아니었다면 선불리 물을 수도, 들을 수도 없을 청년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기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 파티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우리 모임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설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모이는데 힘쓰고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며 교제하는 공동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서로의 아픔마저 끌어안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참 소중한다는 것을 느꼈다. 배화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배화교회

주보 제 2019-5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2.3



주현 후 제 4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회 중 :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함께 : 여호와를 찬양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사도신경 * 다같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 1. 찬양하세
- 2. 그 사랑

대표기도 김재홍 집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및 찬양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 헌금위원 : 김용석, 한호철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으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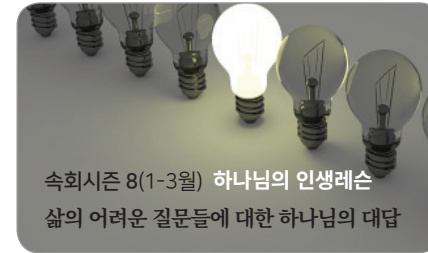
성경봉독 * 로마서 8장 1-15절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파송찬양 및 축도*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손목완필자 김영석 김용석 김은철 김재홍 노준영 문지혜 박세연 박진성 백수산나 성임숙 송민천 송민혜 오세희 이은미 정유민 조진영 최명성 최영광 홍성희 한호철 함은혜 허경식 홍병진 (총 23명)

배화칼럼 칼럼니스트(정기/비정기)를 모집합니다. A4 2/3 정도의 짧은 분량이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경 묵상 또는 개인기도 중에 받은 감동, 또는 신앙적 다짐
- 일상 속에서 경험한 신앙 간증, 또는 단상을 정리
- 속회모임(지)의 내용을 통한 깨달음, 또는 성찰

증보기도 서민욱 집사님이 지난 목요일에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하늘하품<중등부>와 예품<초등부>, 다음 주는 1속(한정식)입니다.

· 지난주 통계

인원	81명
헌금	실일 조 권태성 김은철 성임숙 서민욱 이아람 함은혜 허경식
	감사헌금 권태성 김기택 윤서진 배성경 윤시현 조이안 함은혜 허경식
	목적헌금 성임숙 허경식 함은혜
	주일헌금 김미연 김백준 김영서 김영석 홍병진 김예현 김이설 김택운 김택현 김하린 박세연 송민천 김미소 송민혜 송윤경 윤희선 이기순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이연우 임경훈 주 영 정우석 조영남 정유민 최명성 최영광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한지현 허경식 함은혜 무 명

· 대표기도

2.10	김용석 집사
2.17	김선민 집사
2.24	노준영 집사
3.3	문지혜 집사

* 주중기도모임

수요기도회 : 오전 10시 기도실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 기도실

* 배화교회 안내

홈페이지: www.baewhach.kr
유튜브, 인스타그램: 배화교회